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일-가족 균형*

Work-Family Balance in the Context of Supports of Communities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 수 정 영 금**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Jeong, Young Keum

〈목 차〉

- | | |
|------------------------|--------------|
| I. 서론 | V. 지역사회 지원사례 |
| II. 지역의 개념 및 특성 | VI. 결론 |
| III. 지역의 요구와 자원 | 참고문헌 |
| IV.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 |

〈Abstract〉

This study shows how community can support the work-family balance and stimulate efforts of community within it. For this purpose, community concepts are defined and its demands and resources are compared with those of work and the family. Furthermore, it will examine the conditions which individuals, couples and neighborhoods need for work since the family balance is examined through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index.

Various examples of volunteer activities or movements within the community that will support the work-family balance of the neighbors are also demonstrated. Also, the alternatives for healthy family support activities in Korea are suggested.

Key Words : 일-가족 균형(work-family balance), 지역사회지원(community support),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지표(family-friendly community index)

I. 서론

일-가족의 관계를 고려하고 균형을 잡기 위

해서는 일-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 즉 남성들만이 직장에서 일을 하던 시대의 사회 환경과는 달라져야 하며 지역사회에

* 본 연구는 200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교신저자 : 정영금(jeongyk@catholic.ac.kr)

대한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가 변하고 노동자들이 변하면 노동현장도 달라져야 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회도 변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가정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관리에 헌신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이 일반화되면 가족과 그 안에서의 성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다행히 가정과 노동시장은 일하는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을 마련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사회라는 사회조직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으며 여성들이 항상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과거의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일과 가족이 변화하면 일하는 가족을 지지할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지역사회는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와 더불어 가족을 이해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는 국가보다 가족과 더 근접해 있는 환경으로서 개인 및 공동의 생활경험에 영향을 준다(Marcini 외 2005). 또한 지역사회는 노동조직과 더불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포함하는 일-가족 문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정책적 문제이며 비영리부문에 속한 정부,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지원, 공식적인 지역사회 조직이 참여해야 한다(Voydanoff, 2001).

이와 같이 일-가족의 균형을 위해서 점차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Rayman과 Bookman(1999)은 일-지역사회-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와 공공정책의제(agenda)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Kagan 외(2000)도 일-

지역사회-가족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Oldenburg(1989)는 세 가지의 경험영역을 연결하는 삼각대라는 표현을 통해 가정과 직장, 제3의 장소-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는-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일-가족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Voydanoff, 2005b)나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에 대한 연구(Sweet 외, 2005) 등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가족 균형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의 수준에 머물러 기업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기로 하였다(한국경제 06.06.21). 이 법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주로 기업과 이를 독려하는 정부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했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가족 균형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개념을 규정하고 일-가족과 연결지어 지역사회의 속성과 특성을 설명한다. 또한 일-가족 균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자원을 비교하고 일-가족 균형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의 조건을 제시한다. 끝으로 일-가족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지원노력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러한 활동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제안해본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일-가족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즉 기업과 정부가 일-가족 균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시

각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며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II. 지역사회의 개념 및 특성

1.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의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그 의미와 영역에 따라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Phillips(1993)는 지역사회란 공통된 지역에 살고 공통의 역사와 가치를 갖으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높은 결속력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였고, Leighton(1988)은 지역사회란 공통지역, 결속력이나 규범적인 정서와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최소 세 가지 요인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보았다(Voydanoff, 2001 재인용).

이에 비해 지역사회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지역은 필수기준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Bellah 외(1985)는 지역사회는 토의와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 Small과 Supple(2001)은 지역사회란 집단의 견, 공유된 규범과 가치, 공통의 목표, 정체성, 소속감과 신뢰감 등에 근거하여 개인이 갖는 사회관계를 말한다고 하였다(Voydanoff, 200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정지웅 등(2000)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과 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간집단이라고 지역사회를 정의하였다. 이한기(2004)는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 지역 내의 인간 집단, 인간간의 상호작용, 공동체로서의 유대감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지역,

지역사회문화와 비교하였다.

지역사회를 지역과 관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별개로 범위와 영역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 정의도 있다. 즉, Chaskin 등(2001)은 공유된 사회적 관심사와 특성, 예를 들면 언어, 관습, 계층, 인종 등이 지역사회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는 두 측면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작은 범위의 지역사회와 좀 더 큰 범위의 지역사회이다. 작은 범위에서의 가족 과정과 산물들은 지역의 구조와 과정-물리적인 인프라, 인구학적 특성, 제도적인 자원, 사회적 지원과 통제의 네트워크-이라는 맥락에서 검토된다. 더 큰 범위에서의 가족과 지역사회 접촉은 주정부차원의 정책을 의미하며 이것은 작은 범위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의 작은 범위의 지역사회를 기초로 Mancini 등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통의 지역을 배경으로 해야 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지역사회를 정의하기도 하고 지역과 관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으나, Voydanoff(2001)는 이들의 견해를 근거로 지역사회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즉 제한된 범위 내의 거주, 거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연결된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체계, 공통의 정체성과 운명을 갖는다.

한편 노동과 비노동의 구분을 통해 지역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한다. 즉 노동 대 비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비노동 부문으로 간주된다. 비노동은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건강, 성장 활동, 취미와 레저, 여가활동, 지역사회나 사회 종교활동의 참여 등을 말하므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Greenhaus 외, 1987). Barnett의 접근도 이와 비슷한데, 여기

서는 노동/사회체제로 구분하였다. 노동자의 사회체제란 노동자들의 직접적이고 확대된 가족, 친구,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기타 사람이나 조직을 포함한다. 따라서 비노동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해당하거나 더 넓게 정의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는 지역사회가 공통의 지역과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 지역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 의미보다는 영역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서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나 대체로 영역의 크기보다는 공통의 지역과 공통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비노동으로 보아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간주하였다.

2. 지역사회의 속성과 특성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넓고 다양하므로 Voydanoff(2001)는 6개의 특정한 개념- 지역의 사회조직,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정서, 공식적 자원봉사 및 비공식적 도움, 지역사회의 만족감-을 통해 설명하였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사회조직과 관계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자원봉사나 도움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만족감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각각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역사회의 사회조직이란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공동체를 의미하여 흔히 이웃을 말한다. 사회적 관계망은 지역사회의 사회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Marcini(2005)등도 이를 사회조직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과 가족의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관계망

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사회적 돌봄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호혜적인 사회망과 관계로부터 생겨난 자원의 총합으로서 정보, 기회, 도구적 지원을 말한다. 지역사회정서는 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호간의 신뢰와 규범이란 점에서 사회자본과 연관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는 일-가족 특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 Haas

〈표 1〉 일, 지역사회, 가족의 분석을 위한 범주와 특성

범주	일 특성	지역사회 특성	가족특성
구조	조직의 특성 외적 특성 시기 공간적 위치	사회적 관계망 특성	결혼여부 자녀의 수와 연령 공식적인 배우자 따로 사는 자녀 확대된 가족
사회 조직	직업 요구 직업 내용	공식적이고 자원적인 조직 친지방 사회적 통제성	노동 분담
규범과 기대	직업에 대한 규정 고용 정책 작업문화	사회자본	역할 및 기대된 행동 제재, 성역할이데올로기
지원	책임자의 지원 동료의 지원	공식적 자원봉사 비공식적 도움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의 교환
지향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느낌	참여 지역사회 정서	참여 가족응집
질	특정 대상에 대한 만족 전체적 만족 결근과 이동 직업수행과 생산성	특정 대상에 대한 만족 전체적 만족	특정대상에 대한 만족 전체적 만족 아동발달 (의 결과)

출처; Voydanoff(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1999)나 Galinsky(1999) 등이 분류한 일-가족에 관한 범주와 특성을 재조정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Voydanoff(2001)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표 1>에서 일과 가족이 각각 조직의 특성이나 가족구조라는 특성을 갖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는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구조로 갖고 있다. 또 일에 대한 규범이 직업규정으로 나타나고, 가족에 대한 규범이 가족의 역할이나 기대된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지역사회에 대한 규범은 사회자본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은 가족구성원에게서, 직장생활은 동료들의 지원을 받듯이 지역사회의 생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받는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의 개념과, 속성, 특성을 근거로 볼 때, 지역사회란 지리적인 단위보다는 사회관계의 단위이다. 또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 지역 내에서 공동의 규범과 의식,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으며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인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그 안에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조직이나 관계망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상호간의 도움을 줌으로써 구성원들은 만족하게 되고 지역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자원활동과 같은 무보수의 비노동적 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적인 통제나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지역사회는 개인이 속해 있는 기업체나 지자체의 행정단위와 달리 조직력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조직과 관계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결속도를 높이는가에 따라 지역사회의 역량이나 사회적인 자본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단위의 조직, 능동성, 지역주민의 자원화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조직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송혜림, 2006).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의 조직을 포함한 공식, 비공식적인 조직,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운동,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체들의 비영리적인 지원 등을 지역사회 지원이라고 보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일-가족 균형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III. 지역사회의 요구와 자원

일과 가족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영역이론을 통해 가능하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보면 일과 가족은 여러 가지 활동, 역할, 관계 등으로 구성된 미시체계이며, 둘 혹은 그 이상의 미시체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과정은 중간 체계이다(Bronfenbrenner, 1989를 Voydanoff, 2005a에서 재인용). 영역이론은 일과 가족 미시체계간의 영역이 투과가능하며 융통적일 때 두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Ashforth 외 2000을 Voydanoff, 2005a, 2005b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전제로 Voydanoff(2005a, 2005b)는 일-가족의 적합성과 균형에 대해 개념화하였다. 일-가족 적합성과 균형이란 일과 가족 영역의 상호효과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서, 경험이 긍정적이었는지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혹은 불합리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스트레스의 상황으로 인지하는 것은 환경의 요구가 자원을 초과함으로써 자신의 안녕에 해가 된다고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가족 적합성과 균형이라는 개념은 일 및 가족 역할과 관련된 상대적인 요구와 자원을 평가함으로써 생겨난다.

적합성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이 제공해줄 때 나타나며, 반면에 이 필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일의 요구와 가족 자원은 일 요구-가족 자원 적합성과 관련되며, 가족 요구와 일에서의 자원은 가족 요구-일 자원 적합성과 관련된다. 이 두 유형의 적합성이 일-가족 균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되며 영역을 연결하는 요구와 자원은 두 유형의 적합성과 관련된다.

영역 내 일과 가족 요구 및 자원은 한 영역의 특성으로서 다른 영역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영역 간 요구와 자원은 일과 가족 영역간의 접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 영역 간 전략은 일과 가족의 요구와 자원간의 부적합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이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지역사회 요구와 자원은 그것들이 일과 가족 영역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 요구 및 자원과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일-가족 갈등 및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것이 자원을 생성하거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역 간에 여파를 미치는 정도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요구는 일의 요구와 일-가족 갈등간의 관계를 과장하는데 반해서 지역사회 자원은 일 자원과 일-가족 용이성간의 관계를 증폭시킨다. 그러나 지역사회 요구와 자원은 일 요구와 자원만큼 일-가족 갈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2>에서와 같이 일 영역에서 생기는 요구인 유급노동시간이나 가외 노동시간은 어린

자녀의 보호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영역 내 자원이 직장의 자율성이나 동료의 도움 등으로 가족영역의 요구에 맞출 수 있으며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일이나 가족에서의 요구는 지역사회 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시간적 요구가 커지면 시간부족으로 인한 일과 가족생활의 갈등이 커질 수 있으나, 반대로 지역사회의 자녀 보호 프로그램 등은 일-가족 갈등을 해소해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와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개인이 갖는 각 영역에서의 요구와 자원은 맵을 그려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Bookman(2004)은 바이오텍 노동자들의 맵을 그려봄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끌어내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맵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과 자산맵핑이 있는데,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은 어떻게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자산맵핑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 어떤 자원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지역사회가 변화를 유도하여 부가적인 자원에 접근하는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맵핑은 주어진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된 역량과 기술을 조사함으로써 시작되며 개별적 수준, 시민집단과 비영리조직, 제도적 수준 등 여러 수준에서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기능을 논할 때 전통적인 행정마인드가 아닌 거버넌스 정부를 지향하며 참여와 협의의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야말로 정부와 기업, 비영리적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표 2〉 일,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와 자원

영역		일	가족	지역사회
영역 내 요구	시간에 근거한 요구	-유급노동시간 -가외의 노동시간과 초과근무 -비표준화된 노동스케줄	-어린자녀의 보호시간 -환자나 노인수발시간 -가사노동시간	-자원봉사시간 -비공식적 지원을 위한 시간 -친구와 이웃과의 교체
	긴장에 근거한 요구	-작업요구 -작업 불안전	-배우자의 요구 -자녀의 요구 -친척의 요구 -가사의 요구	-사회적인 비결속 -안전하지 않은 이웃과 학교 -친구나 이웃의 요구
영역 내 자원	가능한 자원	-자율성 -감독자나 동료 지원	-배우자나 친척의 지원	-공동체 의식 -공동체 서비스 -이웃과의 친밀성 -친구 및 이웃의 지원
	심리적 보상	-의미 있는 노동 -자부심 -존중	-부모됨의 보상 -가사의 보상	-의미 -자부심 -존중
영역 간 요구	역할전이	-출장	-출퇴근시간	-시간과 스케줄상으로 일, 지역사회서비스, 학교가 잘 맞지 않음 -일-가족 역할에 관한 규범의 불일치
	역할불분명	-재택근무 -일을 집으로 가져감	-직장에서의 가족활동 -가족의 방해와 산만	-직업상 필요한 지역사회 참여 -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 참여
영역 간 자원	노동지원	-융통적 스케줄 -자녀보호 -가정 서비스	-배우자와 친척의 자녀보호 -배우자와 친척의 가사노동	-자녀보호, 방과 후 학교, 노동보호 프로그램 -이동 -가사서비스 제공자
	가족지원	-부모휴가 -가족을 위해 짬을 냄 -시간제 노동	-배우자의 취업	
	규범적 지원	-지원적인 일-가족문화 -감독자의 일-가족지원	-배우자와 친척의 일-가족 지원	-친구와 이웃의 일-가족 지원
영역 간 전략	요구의 감소	-노동시간 감소 -초과근무 거절 -노동스케줄의 변경 -출장 거절 -요구가 적은 업무수행 -승진 거절 -업무배당 거절	-가족 업무를 망각 -자녀보호를 적게 함 -출산 제한 -가사노동을 적게 함 -단순업무 대 경력관리를 배우자와 조정함	-자원봉사시간 감소 -비공식적 지원감소 -친구 및 이웃과의 교체 감소 -이웃이나 학교의 변경
	자원의 증가	-노동시간 증가 -여유 있는 업무 수행 -자영자가 되기	-보모 고용 -가사보조자 고용 -일-가족 지원 증가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친구 및 이웃의 지원 증가

출처; Voydanoff(2005a)와 Voydanoff(2005b)의 표들을 결합하여 재구성.

따라서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어떤 자원을 네트워크할 것이며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끌어내고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학분야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이 시작되면서 보육사업이나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실천 사업으로 대두되었고, 이 문제해결에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사업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조성 사업이나 지역사회운동, 지역사회조직의 체계화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가족 균형의 문제와 연결시켜 본다면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한 가정의 요구와 자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가정의 일과 가족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 충족시켜줄 수 있다. 대체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가족 균형의 문제에서는 문제가정이나 위기가정 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경우에도 도움이 필요하므로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개별가정과 개별가정이 교환하는 방식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맞추어 지역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의 경우에 서로의 요구가 유사할 것이며,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표 2>를 보면, 지역사회 차원의 요구에서 직장과 학교의 스케줄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지역사회 차원의 차원에서 스케줄 조정이나 다양한 교육시설이

제공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 일-가족과 관련된 공공정책에서 학교에 대한 제안이 많고(Halpern, 2004), 가족친화적인 학교에 대한 요구(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6)가 많은 것이 이 때문이다.

IV.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기업에서 먼저 시작되었듯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무엇이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을 때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하는가 등에 대한 개념정리는 비교적 잘 되어있는데 비해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나 합의 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최근에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어떤 지역을 가족친화적이라고 하는가, 지역사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들이 시행되고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가 구성원들의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Halpern(2004)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일하는 가족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조언하면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대중교통이 가능한 곳에서 제공하는 질 좋은 아동프로그램/ 지원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와 기업이 연계된 일정표/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Halpern, D. 2004). 또 Bookman(2004)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와 관련된 넓은 범위의 조건을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덱스를 개발하였다. 즉 경제적인 자족능력과 주거가용성/ 학령 전 자녀보호프로그램/ 학령기 자녀보호(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교육의 질/ 노인보호서비스/ 공립 도서관/ 공원, 여가시설, 개방공간/ 교통 서비스/ 공공안전과 이웃의 안정성/ 통합된 건강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Bookman 2004).

또 Sweet 등(2005)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건들이 맞벌이가정이나 홀벌이 가정에서 동일한가 혹은 성이나 자녀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가 등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맞벌이부부가정이 좋아하는 지역의 특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과 가족친화라는 지역사회 개념과 가장 관련이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즉 지역의 선택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요소를 조사하였다.

우선 이들은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오픈 문항으로 질문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지표로는 안전성, 학교의 명성, 주거환경,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공원과 도서관과 이벤트, 여가, 동네의 규모, 쇼핑기회, 자신의 직장과의 거리, 친척과의 거리, 세금이 선정되었다. 이 지표들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해볼 때, 부모들은 부모가 아닌 사람보다 학교, 공원 도서관, 지역사회 이벤트를 중요시하였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안전성(동일)과 배우자 일터의 근접성을 고려하였다.

또 OLS분석을 통해 가족친화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에 지역사회 인프라로서는 이웃과의 유사한 생활단계, 레크레이션 기회, 사회역량에서는 가족 이벤트와 활동, 이웃우호성, 지역사회이벤트가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인프라로서 이웃과의 유사한 생활단계와 교육적 기회, 사회역량으로서 가족이벤트와 활동, 이웃우호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들은 생애과정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생애과정단계에 처한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자원을 바라는지를 인식하게 해준다. 또 지역사회를 선택하는 행동을 통해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족적응전략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고 또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생활주기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 결과들을 볼 때 지역의 가족친화성은 아동보호시설이나 방과 후 보육시설과 같은 프로그램 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량이나 우호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친화성의 조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해볼 때, Bookman(2004)은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즉 대부분의 지역사회들이 다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일하는 성인을 위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오히려 극빈층을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나 중류층을 대상으로 한 일-가족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어려우며 가족보호시설에 많은 돈을 지불할 만큼의 노력도 없으므로 중류층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중류층 가정의 생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은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중류층 맞벌이 가정의 양육문제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들은 일-가족 균형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는 또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

에 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맞벌이 가정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나 정보제공,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 마련 등이 요구된다.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조건에 대한 연구들이 미국에서도 최근에 시작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연구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도 가족들이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라고 할 때 최소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를 통해 일-가족 균형을 유지하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것이 가정의 조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일-가족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해봄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V. 지역사회 지원사례

지역사회가 가족을 지원하는 사례로는 미국공군의 가족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들 수 있다. 미국공군은 일-가족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작업장 중심으로 일-가족 혜택을 주는 대신에 군인가족에게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적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공군의 방법은 CARE라는 네 가지 요소에 기초를 둔다. 기회창출, 관심유도, 장벽제거, 지역사회 연계로서 공군은 참여자들이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포럼에 지역관계자들을 연계시킴으로써 센터를 발전시킨다(Bookman, 2004).

이 토론과정은 지역사회기관과 공군가정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만들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비

공식적인 사회적 연계를 형성한다. 공군은 전통적인 인적 서비스 모델에서와 같이 가족을 클라이언트나 수혜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파트너 혹은 자산으로 보았다. 공군의 혁신은 특정지역에 특별한 센터를 만들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런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들의 전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집단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사회 정서를 만들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센터 구축을 통한 지원과 달리,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운동을 통해 일-가족 균형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운동측면에서는 1980년대 초에 가족자원과 지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확산되어 1981년에 Family Focus라는 컨퍼런스가 개최된 사례를 들 수 있다. 300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한 후 이 노력을 하는 단체들의 범국가적인 조직망인 가족자원연합(FRC)을 결성하였다. 이 연합은 정책입안자, 프로그램 제공자, 연구자, 방송계 등에 가족 지원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Kagan, 1994).

특히 앞 장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관련시설이나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의 역량이나 우호성 등이 제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사회운동은 일-가족 균형을 위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지원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일-가족 균형은 단순히 보육을 위한 경제적, 시설적 지원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적, 인식적 변화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지역사회운동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지역사회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지

만 기업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지역사회를 지원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와 기업이 연계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내부의 정책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용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와 달리 비영리적인 목적에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 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탁아를 위한 미국기업 연합(the American Business Collaboration for Quality Dependent Care, ABC)이다. 1992년에 22개의 대기업이 회사의 고용인들과 기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질 높은 탁아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그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서비스제공자들과 연합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전국적으로 65개 지역사회에서 탁아시설의 공급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후로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1500여개의 탁아시설과 노인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서로 경쟁적인 대기업들이 연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기존의 탁아시설이라는 인프라를 공고히 함으로써 고용주와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떤 지역사회에나 있는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규모나 질이나 지속성에 기여하는 것이다(Bookman, 2004). 이것은 결국 지역사회에 있는 탁아시설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인 사회가 되고, 그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된다. 동시에 고용원들은 일-가족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자본이 증대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상생의 전략이 된다.

한편 일-가족 균형에서는 육아문제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도 지역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

다. 순수민간단체는 아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웨미리서포트센터를 통해 맞벌이가정을 위한 여러 육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주고 있다(정민자, 2006).

우리나라에서는 일-가족 균형을 위한 지역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운동 등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역이나 기업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지역단위의 가족봉사단이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본다면(예를 들면, 울산가족봉사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자원봉사단 등)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혹은 지원내용별로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5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가정간의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가정간의 협동에 대한 필요는 가정이 가족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공동체 내에서 이웃이나 다른 체계와 연대하는 것을 지향하며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이기영 외, 2004).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주민조직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조직을 자원화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송혜림 외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일-가족 균형과 관련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가족자원봉사단의 활동을 포함하는 문화사업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센터가 사회의 기타 조직들과 연합하여 전개하는 지역사회운동, 보육이나 가족원들을 돌보아주는 활동, 일-가족 균형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화사업은

전국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와 건강가정생활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을 목표로 전국 47개 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친가정적인 사회문화조성을 목표로 가족사랑 걷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대구 달서구 센터에서는 기업대상의 친가족문화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전국 47개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 결과, 약 7곳(광명, 성남, 김해, 창원, 포항, 대구달서구, 마포구)에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을 문화사업의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사업이 확산되거나 구체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목표로 하였거나 이미 실시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사업도 일-가족 균형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기 보다는 단지 가정을 좀 더 중요시하기 위한 의식문화 확산이나 남편을 가정생활에 더욱 참여시키는 양성평등 문화 등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자원봉사단도 아직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가족 균형은 가정 및 기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인데, 아직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단지 아버지의 돌봄노동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아버지 교육을 통해 가사노동을 분담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이것 역시 가정 내의 해결책에 불과하므로 지역사회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일-가족 균형을 확대시키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과 문화사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 일-가족 균형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를 본다면, 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일-가족 균형 지원사례를 바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마다 위치할 수 있으므로 일-가족 균형에 관한 인적서비스제공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미 육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외에 보육에 관한 정보와 장소의 제공, 관계망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가족 균형에서는 지속적인 보육도 문제이지만 다양하고 단기적인 돌봄,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지속적인 정보제공,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등이 중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이나 공공정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육, 상담활동과 더불어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가족 균형과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문화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일-가족 균형은 가시적인 시설이나 지원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일-가족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인 조직이며 생활과학이라는 학문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가족 균형을 넘어서 더 큰 범위의 지역사회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셋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가족 균형을 위한 기업체 교육에 적합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체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일-가족 균형에 관한 교육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건

강가정지원센터는 일-가족 균형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면서 기업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일과 가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그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의 비전을 개발하고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인 노동을 하는 남성과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이 한 가정을 꾸려가던 시대에서 두 성인이 모두 유급을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사나 육아에 소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저출산이나 가정문제들이 속출하게 되면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일-가족균형의 사회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전개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활에서 유급의 노동을 우선시하던 생각을 바꾸고 가족의 가치나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가족 균형을 위한 노력에는 기업이 선도적이지만 좋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적이 우선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역시 기업을 가족친화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독려하고 정착시키며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일-가족 균형의 문화형성에는 지역사회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에서는 정부는 장시간 근로, 비탄력적인 근무제도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왔던 기업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

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와 주40시간제 시행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가족형 모델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가족친화마을 인증시스템 구축, 가족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대규모 지역 개발 시 가족영향평가 실시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범지역이나 인증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족의 요구와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나 공동체조직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것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일하는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위해 Halpern(2004)이 제안한 바와 같이, 위의 정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아동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학교나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집단들이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일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획이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각 단체들이 가정의 요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아직까지 가족친화적인 환경이나 일-가족 균형의 문제에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육아 문제나 교육의 어려움 등이 지역사회활동의 대표적인 의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 활동들을 보다 큰 지역사회운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가족자원연합과 같이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해 온 여러 지역

조직들이 서로 연계하여 사회 운동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학술적인 지원도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즉 어떻게 지역사회가 일-가족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족의 요구를 파악할 것인가, 일-가족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할 것인가, 이를 위하여 기업과 정부, 지역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학문적으로는 일-가족 균형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를 움직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역량은 지역사회의 책임감과 집단능력을 통해 결과를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자원을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라는 지역사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적 조직망을 구축하며 그것들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전략과 리더십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가족 균형에서는 일-가족 균형이 여성의 문제이거나 저소득층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을 지향해야만 지역사회의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 대체로 중류가정들은 가정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의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가 역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원을 통해 가정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지만, 보통의 가정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중류층의 경우에 맞벌이를 해야만 가족의 현재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소득을 지불하거나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거나 양육을 위해 경력을 단절해야 한다. 이것이 맞벌이의 함정(엘리자베스 워런, 2003)이고 중류가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가정 자체의 해결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해결이 바람직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경제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경제적, 교육적, 심리적, 문화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센터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가족 균형을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의 장이 될 수 있고, 일-가족 균형이라는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며, 가정-기업-국가-지역사회를 매개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균형 주체의 네 축인 기업-정부-지역사회-가정 중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일-가족 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미와 특성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요구 및 자원을 일-가족의 요구 및 자원과 비교해보았다. 또한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사회는 어떤 조건을 갖는지를 모색해보고,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단지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동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앞으로 우리의 지역사회가 일-가족 균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며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일-가족 균형이 보다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접수일 : 2007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1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25일

【참 고 문 헌】

- 1) 송혜림, 김소영(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가능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1-18.
- 2) 엘리자베스 워런, 아멜리아 워런 티아기 (2003). *맞벌이의 함정*. 필맥.
- 3) 이기영 외(2004).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탁연구 자료집.
- 4) 정민자(2006). 가정 내 육아지원에 대한 세대동향과 일본 현지사례.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5) 정영금(2002). 가족-일 통합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143-155.
- 6) Ashforth, B.E., Kreiner, G.E., & Fugate, M.(2000). All in a day's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472-491.
- 7) Bookman, A.(2004). *Starting in our own backyards*. London: Routledge.
- 8) Bronfenbrenner, U.(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7-249.
- 9) Halpern, D. F.(2004). *Public policy, work, and families*. The report of the APA Presidential Initiative on work and families.
- 10) Kagan, S. L. and B. Weissbourd(1994). *Putting Families First*. SF: Jossey-Bass Inc.
- 11) Mancini, J., G. Bowen and J. Martin (2005).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A conceptual linchpin in examining families in the context of communities. *Family Relations* 54, 570-582.
- 12) Scanzoni, J. H.(2001). Reconnecting Household and Commun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2(2), 243-264.
- 13) Sweet, S., R. Swisher and P. Moen (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 596-606.
- 14) Swisher, R., S. Sweet and P. Moen (2004).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for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281-292.
- 15) U. S. Department of Education(1996). *Reaching All Families*.
- 16) Voydanoff, P.(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y, Work & Family* 4(2), 133-156.
- 17) Voydanoff, P.(2005a).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Perceived work-family fit and balance: a demands and resource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822-836.
- 18) Voydanoff, P.(2005b). The effects of community demands, resources, and strategies on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work-family interface: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Family Relations* 54, 583-595.